

이정훈 불방망이에 불 붙은 '안방싸움'



3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자체 흥행전에서 백팀 7번 지명타자 이정훈이 4회 말 2사 3루 때 우월 투런홈런을 날리고 흥인하며 나지완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우

KIA 네번째 흥행전

투런포로 팀 승리 전인
공 보는 눈 잠정...화력쇼 예고
포수 경쟁 '다크호스' 주목
"수비 안정감 찾기 주력 중"

포수 6명 총출동 주전 어필

김민식, 박찬호 도루 저지 눈길

이정훈이 '한방'으로 KIA 타이거즈 안방싸움에 불을 붙였다.

KIA는 지난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4번째 흥행전을 치렀다. 경기는 홈런 포함 장단 8안타로 3점을 만든 백팀의 3-0 영봉 승으로 마무리됐다.

백팀의 7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나온 이정훈이 선제 투런포를 날리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드류 가능과 이민우가 각각 홈런과 백팀의 선발로 나온 이날 가능성이 먼저 2이닝을 소화한 뒤 물러났다. 가능의 성적은 2이닝 1피안타 1볼넷.

3회말 홈팀 마운드를 물려받은 흥행회가 4

회 선두타자 나지완에게 우측 2루타를 허용했다. 유민상의 2루수 땅볼에 이어 장영석의 직선타로 2사 3루. 타석에 이정훈이 섰다. 이정훈은 흥행회의 몸쪽 높은 볼을 그대로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넘겼다.

이정훈의 홈런으로 선제점을 만든 백팀은 리드를 지키며 3-0 승리를 만들었다.

이정훈은 이날 지명타자로 나섰다지만 원래 포지션은 포수다.

KIA는 이정훈 포함 한승택, 김민식, 백용환, 한준수 등 5명의 포수로 스프링캠프를 진행했다. 아직 확실하게 치고 나온 선수가 없는 만큼 안방싸움은 안갯속에서 가려져 있다.

이날 흥행전에서도 포수들이 총출동해 경쟁을 벌였다.

홈팀에서는 김민식이 스타팅으로 나왔고 한준수가 지명타자, 이진경이 대타로 출전했다. 백팀에서는 한승택이 먼저 마스크를 썼고, 백용환이 이어 자리를 지켰다.

이정훈은 지명타자로 타석에서 점검을 받았다.

김민식은 박찬호의 도루를 저지하는 강한 어깨로 점수를 얻었고, 이정훈은 강점인 화력을 보여줬다.

2017년 경희대를 졸업하고 KIA에 입단한 이정훈은 이해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되면서 우승의 현장에도 섰다. 그리고 이 시즌이 끝나고 상무에 입단, 지난 가을 제대했다.

'예비역' 이정훈은 올 시즌 포수 경쟁의 다

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정훈은 "그 전 타석에 타이밍은 맞았는데 높은 볼이었다고 해서 다음 (홈런 친) 타석에서는 높은 존을 그려놓고 쳤다"며 "그 전 타석에 안 좋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홈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타이밍'에 고전했던 이정훈은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화력쇼를 예고했다.

이정훈은 "캠프에서 루틴을 만들려고 집중했고 미국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타이밍이 미국 투수하고 한국 투수하고 달라서 힘들었다.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다"며 "타격 쪽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못 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타석에서 공보는 게 장점이 고 제 장점을 살리려고 하신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타격 자신감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수비에서의 안정감이다. 안방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수로서의 수비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

"수비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진감용 코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질문도 많이 한다. 다른 포수들도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서 공부도 많이 했고 발전했다"고 언급한 이정훈은 "군대에서 경기를 나갔지만 1군하고 다르니까 리드 부분에서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걸 공부하고 있고, 팝 타임(2루 송구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방향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핫 플레이어- 투수 이민우

체인지업 장착 4이닝 무실점... "선발 진입 목표"

KIA타이거즈의 이민우가 '체인지업'으로 선발 자리를 잡는다.

KIA 이민우가 지난 3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흥행전에서 캠프 이후 두 번째 등판을 소화했다.

백팀 선발로 나선 이민우는 4회까지 52개의 공을 던지면서 3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 4-5 선발 경쟁에서 선두 자리를 지켰다.

시작은 좋지 못했다.

연속 안타 이후 볼넷까지 내준 이민우는 황대인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급한 불을 껐다. 투구수 제한으로 아웃카운트 3개를 채우지 못했지만 2회는 삼자범퇴로 막았다. 이민우는 중견수 플라이에 이어 연속 삼진으로 2회를 끝냈다.

3회도 2루수 땅볼과 우익수 플라이, 유격수 땅볼로 마무리했다. 김규성에게 선두타자 안타를 내준 4회도 추가 진루를 허용하지 않고 탈삼진 한 개를 더해 등판을 종료했다.

캠프에서부터 꾸준한 이민우에게는 체인지업이 있다. 지난 시즌을 통해 '변화구' 고민을 한 이민우는 변화구 비중을 높이고 있다. 특히 새로운 구종인 체인지업이 이민우의 신무기가 됐다.

이민우는 "변화구 비중을 높이고 있다. 구종 하나 늘

려서 체인지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삼진 잡을 때도 체인지업을 사용했다"며 "체인지업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타자들이 더 빨리 치는 것 같다. 범타도 많이 나오고 땅볼도 나오면서 투구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과감하고 여유 있는 승부도 지난해와 다른 변화다.

이민우는 "(위기가 와도) 스트라이크 안으로 승부를 하다가 범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많이 안 주는 것 같다. 볼넷을 최대한 주지 않고 공격적으로 승부하는 생각이다"며 "올해는 너무 완벽하게 던지려고 안 한다. 비슷하게 던져서 타자가 치게끔 한다. 예전에는 완벽하게 던지려니가 볼넷도 많고 투구수도 많아서 위기가 오면 한 번에 무너졌는데 그걸 많이 잡으니까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우는 방심하지 않고 밸런스에 초점을 맞춰 '끝까지 달리겠다'는 각오다.

이민우는 "선발 로테이션 들어가는 게 목표다. (임)기영이, (홍)상삼이형도 잘하고 있고, 시즌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다.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밸런스가 잘 잡으면 (로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앞선 등판보다 밸런스가 더 좋았는데 캠프 때보다는 제구가 불안정하다. 제구를 신경 쓰면 캠프 때만큼 나올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팀 간 연습경기 21일부터

KBO 긴급 실행위 개최...다음달 초 개막·리그 축소 검토

KBO가 4월 7일로 예정됐던 구단간 연습경기를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KBO는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10개 구단 단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타 구단과의 연습경기는 예정됐던 날짜인 4월 7일부터 2주 늦은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KBO는 정규리그 개막일 역시 애초 4월 20일 이후에서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학교

개학일이 조정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리그 축소에 대해서는 "144경기를 하려면 5월 초가 마지노선"이라며 "만약 더 늦어지면 경기 단축도 고려해야 한다. 리그 축소에 대해서는 실행위, 이사회에서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2주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외국인 선수의 훈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가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혹스러운 구단이 있을 수 있지만, 선수, 팬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역대급 99번 될 수도"

美 스포츠 온라인 매체 디에슬레틱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도 배번 99번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까?

미국 스포츠 온라인 매체 디에슬레틱은 그렇다고 본다. 이 매체는 31일(한국시간) 역대 메이저리그 배번별 최고 선수를 꼽으면서 류현진의 이름을 언급했다.

디에슬레틱은 등번호 99번을 대표하는 역대 최고의 선수로 강타자 매니 라미레스(48)를 꼽은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류현진 혹은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가 이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현진이 미국 현지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도널드, 온라인 골프 레슨 코치 변신

전 세계랭킹 1위...PGA 투어 중단에 SNS에 동영상 올려

남자 골프 전 세계랭킹 1위 루크 도널드(잉글랜드)가 전 세계 프로골프투어가 중단된 가운데 온라인 레슨에 나서 화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느라 미국 플로리다주 피터의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도널드는 최근 개인 SNS에 골프 레슨 동영상 3개를 올렸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올린 레슨 동영상은 도널드의 집에서 찍었고 일부 동영상은 도널드의 두 딸이 촬영했다.

도널드는 "많은 사람이 지금 집에 갇혀 살다시피 한단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집에서 10분만 따라

하면 골프 실력을 향상할 비법을 알려주면 고마워 할 것 같아서 시작했다"고 골프위크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5승을 포함해 프로통산 17승을 올렸고 한때 세계랭킹 1위도 꿰찼던 도널드가 만든 레슨 영상은 집샷과 피치샷, 그리고 퍼트 기초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연습법을 담았다.

그는 "팬들에게 그동안 받은 응원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다.

디오피온 2차례 대 메이저대회에서 3승을 올린 파드리크 해링턴(아일랜드)도 최근 인스타그램에 레슨 동영상을 올렸다.

/연합뉴스